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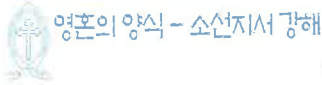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 전화: (02) 558-1106 | 팩스: (02) 558-2107 | www.seoulchurch.or.kr



하나님 백성의 현재 의무

(스가랴 8:8 - 13)

본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8:8).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할 때에는 통회하는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 받은 기쁨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금식하며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려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어려울 때라고 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빼앗긴다면 그는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손을 놀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기초들을 놓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한 개인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신사 참배를 거절했습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에게 고발하여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하며 양자로 삼았던 분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주의 사도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순종한 가정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가정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2. 전날의 고통을 기억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전날의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무역이 종식되어 경제가 침체되므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도 샅을 받지 못하는 비통함에 빠졌습니다(10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10절).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에게는 이웃의 위로도 없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자유분방하고 서로 보복하며 여행할 수도 없는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11절).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로 대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12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시며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주와 욕설과 비방과 치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13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겸손한 사람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아무 것도 두려워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이웃 나라와 안에서의 훼방꾼들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14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 때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을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이시므로 우리는 그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행함이 없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으로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척도이며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과 같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은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9절).

2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2004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확정되다

9월 첫 주에 모두 열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제26학기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성도와 주민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 2회씩 개강하고 있는 열린프로그램 2004년도 하반기 과정이 오는 9월 첫 주에 모두 개강한다.

교회설립이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26학기 짝 계속되고 있는 목회자세미나는 교계에서 정평 있는 대표적인 세미나로 자리 잡아 연인원이 12,000여명에 이를 만큼 전국의 많은 교역자들의 큰 호응 속에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교회가 대치동 예배당 시대를 맞아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생명을 구원하

는 구원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성도와 이웃 주민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열린프로그램은 지난 전반기부터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오는 9월에 개강하게 되는 2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2004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와 이웃주민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프로그램별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주제: 설교와 설교자
- 기간: 9월6일(월) - 11월8일(월) 10주간
- 8주째 강의(10월25일)는 연세대 백주년 기념강당에서 행해진다.

제1교시 (오후 2:00 - 3:30)	제2교시 (오후 3:50 - 5:20)	강의제목	강사
시편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9월 6일	설교는 왜 하는가?	김세광 박사(서울장신)
	9월 13일	설교와 적용	김동호 목사(높은뜻승의교회)
	9월 20일	설교와 신학 (추석연휴)	김재진 박사(연세대)
	9월 27일	설교에서의 예화사용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10월 4일	설교와 영성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10월 11일	강단에서의 유모어 사용	용혜원 목사(한들성결교회)
	10월 18일	설교자 연구	민경배 박사 외
	10월 25일	설교의 유형	김운용 박사(장신대)
	11월 1일	한국교회 강단을 말한다	이상규 박사(고신대)
	11월 8일		

<제16학기 서울성경대학>

- 기간: 9월 6일(월) - 11월 8일(주) 10주간
- 입학대상: 전교인교 이웃주민
- 수강료: 10,000 원(과목당)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야교보서	월 오전 10:00-11:00	이태훈 목사	602호
로마서	화 오후 7:30-8:30	한상은 목사	602호
사무엘 상	목 오전 6:00-7:00	이용식 목사	602호
빌립보서	금 오전 6:00-7:00	윤영국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김운호 목사	609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오정식 목사	607호

<제9학기 살롬경로대학>

- 기간: 9월9일(목) - 11월7일(목)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수강료: 10,000 원
- 1교시: 찬양 및 경건회
- 2교시: 교양강좌
- 3교시: 점심 및 친교
- 4교시: 특별활동
- 특별활동: 성경교실, 컴퓨터교실, 율동반
- ※특별활동 후 점심, 침술치료

<제8학기 서울주부대학>

- 기간: 9월 7일(화) - 11월 9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602호
- 1교시: 경건회
- 3교시: 친교(점심식사)
- 수강료: 10,000 원
- 2교시: 교양강좌
- 4교시: 특별활동

일자	과목	강사	일자	과목	강사
9월7일	인생과 신앙, 그리고 가정	김재진 목사(협동목사, 연세대 협동교목)	9월9일	노년기의 만족한 삶	오정식 목사
9월14일	주부와 가정의 정신건강	이정현 집사(정신과 전문의)	9월16일	건강 체조	김희 선생
9월21일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신명희 교수(연세대 교육학과)	9월23일	약과 건강	이운진 권사
9월28일	휴강(추석연휴)		9월30일	당뇨병과 노인건강	안철민 박사
10월 5일	신앙간증	이용선 장로(서울교회 원로장로)	10월 7일	노년기의 여가생활	박금실 전도사
10월12일	한의학과 여성건강	박동원 원장(전 경희대 교수, 박동원 한의원)	10월14일	국가안보와 신앙	이갑진 장로
10월19일	음악-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로	박정선 교수(단국대 음대)	10월21일	아외수업	견 학
10월26일	아외수련회		10월27일	영화상영	담당자
11월 2일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장윤정 실장(르본 화장품)	11월 4일	노인과 안방	김영주 집사
11월 7일	문학과 현대인	나소정 선생(명지대 강사)	11월11일	신앙간증	노문환 장로

2004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주 순례자에 발표된 데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4년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 장학 증서를 수여받아야만 장학금이 지급된다.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서 학업을 쌓아 더욱 크게 쓰임 받도록 기도한다.

2004 농촌전도대 출발

10일(화) 오전 7시 분천중앙교회로

2004 농촌전도대가 지난 주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10일(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분천중앙교회로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한다. 농촌전도대가 13일(금)까지 4일동안 힘써 말씀을 전하고 현지교회가 자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알 림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방법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지하 1, 2, 3층 운영을 오전 6시부터 시작하고 사무국 및 5층 전체에 밤 10시부터 야간경비시스템을 가동한다.

단, 교회 행사 및 호실 사용 시 사무국에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장로기정탐방-노송성장로기정탐방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하여

5기 장로인 노송성 장로님은 1943년 황해도 용진에서 4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1.4후퇴 때 남쪽으로 피난을 나와 인천의 감리교회를 다니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노장로님의 가정은 대대로 부농에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지만 그의 부친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사는 허



탄한 것이라고 하여 곧 제사를 그만둘 만큼 믿음에 열성을 보이셨단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노 장로님은 대한항공만 35년을 다닌 성실파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의 신앙이 곧 생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 장로님은 직업상 해외 생활을 오래 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족이 함께 지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15년 동안 불과 1년 반의 시간만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 시간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나날들이었다. 특히 사우디아에서는 기독교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터라 직원들끼리 몰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 없이 체험했다고 한다.

서울로 돌아와 이준용 목사님을 만나며 그는 다시 한 번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말씀 앞에 초지일관 열정을 불태우는

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어느덧 초지일관의 신앙관이 몸에 배게 되었다고 한다. 98년 장로로 피택 되었고, 안수를 받으며 그는 교회와 당회 앞에 순종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해 본다.

아내 이영옥 집사와는 73

년 결혼, 슬하에 출가한 애리와 창훈(청년부)을 두고 있다. 이영옥 집사는 결혼 전 카톨릭 신자였으나 결혼을 하며 개종을 하여 자신보다 늦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여장부라고 아내를 소개한다.

새가족부 부장을 맡고 있는 노 장로님은 새가족부를 섬기며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한다. 우선은 교사들의 눈물겨운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초신자가 등록하여 8주간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자기희생만 있다면 새가족들의 이 같은 가시적인 열매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새가족은 새가족부 만의 몫이 아니므로 성도 모두가 바나바의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당부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노 장로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허 숙(편집부)

어찌 하오 리이까?

요즘 썸뚱더위에 견디시기 힘드시죠?

지난 번 어떤 성도 왈 ‘교회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성도 왈 ‘예배 시간에 썸뚱에 앉은 기분입니다. 제발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엄살(?)을 부렸습니다.

교회는 여러 체질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곳임을 모를 사람이 없을 터,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제한된 에너지를 효과 있게 사용하면서 최선의 예배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인터넷에 이런 불평스런(?) 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전 6:12) 서로 참고 견디는 미덕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요.

만민에게 전도-단기선교팀 중간보고드림나

시라즈곤즈(Sirajonj)에 쌍무지개가 뜨다

시키셨지 깨달으면서, 주의 도우심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8월 4일 선교팀은 시라즈곤즈로 향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속에 가슴을 졸이며, 3시간 만에 도착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집짓기 사역은 5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였는데, 리샤를 타고, 걷기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옷을 걸어 올리고 물속을 걷기도 하며 가까운 곳은 20분에서 멀리는 1시간 이상을 이동하여 사역에 들어 갔습니다. 특별히 의료와 이미용 사역은 직접 각 지역을 돌아 다니며 감당하였습니다.

집짓기는 12장의 양철로 지붕을 만들고, 8개의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다섯줄의 얇은 대나무로 그사이를 갈대나 줄로 엮어 벽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집을 본 순간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흠을 나르는 일, 수많은 바퀴벌레를 보고 무서웠던 일,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친 일 등 박수로 격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동안 600여명의 환자를 상대한 의료팀의 놀라운 솜씨와 80여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머리를 손질한 이미용의 솜씨는 저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준비해간 티셔츠와 축구공과 농구공, 라면과 학용품 그리고 얼마의 선교비를 전달하면서 우리는 서로 '이슬 아쁜 나께 발로바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인사하며 시라즈곤즈를 떠나 다카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갑자기 하늘에 남북을 잇는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고 선명한 무지개가 생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쌍무지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쪽에 살짜나 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무지개가 아니고, 하늘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대형 무지개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차를 멈추고 모두들 내려서 바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받아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에 두세번 한쪽에 잠깐 생기는 무지개는 보았지만,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완전히 생긴 무지개를 처음본다며 선교사님도 감격해 하였습니다. 선교팀은 시라즈곤즈에 나타난 쌍무지개를 보고 크게 감동받으며 남은 선교 사역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8월 6일 다카에서...



최영렬 집사(제4기 단기선교팀 총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붙잡고, 방글라데시 선교팀은 뜻하지 않은 비행기 고장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하루를 대기하여 8월 3일 밤 11시 40분에 다카에 있는 지아(Zi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입국 수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한번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의 만남속에,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여장을 풀고 벽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도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제는 이곳이 너무 덥고, 물도 빠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루늦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 하였습니다.

선교팀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루 대기

만민에게 전도 - 2004농촌전도를 떠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최규조 집사(2004농촌전도대 전도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출발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북 봉화군 분천리로 부름을 받아 출발을 앞둔 우리 농촌 전도대는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천리 191세대 350여 명 중 독거인이 67명이며 대다수가 고령자입니다. 우리는 이 어르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사진 봉사, 식사교제도 할 것이며 저녁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건물을 바라보기만 했던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천리 주민 모두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이 되도록, 또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말씀에, 사랑에,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출발하려 합니다. 대원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자원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 죄로 어두운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전도대와 단기선교팀

나의 하나님 - 故 이명옥 권사를 기리며

위대한 유산

황정임 권사(1교구)

100년 가까운 한 평생 눈을 감으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와 찬양으로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머니.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본을 유산으로 남기신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지난 달 22일 99년간의 무거웠던 세상의 끈을 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백년 가까운 세월동안을 살면서 몸소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유산은 '무릎으로 사는 기독교인'의 표상을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906년 경북 금릉에서 4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뿌리내린 믿음의 씨앗은 지금껏 우리

자식들에게 유전 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1년 전 기력이 다해 앓기조차 힘들어

지기 전까지 어머니는 평생 새벽시간 대부분을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밥을 굶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다른 일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지런히 무릎 꿇고 자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글도 깨우치셨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들었지만 평생을 힘들여 농사를 지어 모은 재산으로 예배당을 짓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양육하는 일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에 금은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물질적 재산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표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며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는 저는 언제 당신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사경회 (9월 6일~10일)와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만민에게 전도 - 70인 전도대

이 여름 어떻게 전도할까?

김은태 집사(13교구, 70인 전도대 대장)

더운 날씨로 인해 열린 견고한 문들,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 더위에 무슨 전도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모르나 그간 사람들의 닫힌 마음과 방법의 식이 커서 열기 어려웠고 두들기기 쉽지 않았던 가정의 문들이 지금은 더위 속에서 스스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좀 더 전도의 신 발판을 조일 때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전도활동이 멀잖아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절의 순환 속에서 이 견고한 빗장을 열어 체쳐주셨으니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여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으므로 막무가내로 나가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우므로 무조건 문을 닫아 걸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문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말을 건네기는 수월하며, 가정형편과 사람의 형색을 파악하기가 좀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죽어가는 영혼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70인 전도대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정

- 당회원(가족) 수련회가 13(금), 14(토) 평택 진위고등학교 생활관에서 열린다.
- 전광영집사(13교구): E.B.S문화 문화인 프로에 출연 8월 10일 밤 12시-1시
- 이사: 김현희, 김은주성도 (431-0885, 송파구 송파동 92-9번지) 김상복, 김해숙성도(송파구 오금동 삼성@ 2-503호)
- 이전개업: 김동봉집사/임미경집사(1교구): (주)은진인터내셔널 (서초구 양재동)573-2101
- 교역자휴가: 임규현 목사 (9-14일) 대행: 서명철 목사
- 주간 식당봉사: 권사회 (8월 8일) 빌립당신교회(8월 15일)
- 금주의 식사: 김형택 집사(윤갑권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독교 TV - (http://www.cts.tv)